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4. 2. 27.

한국산업위생협회

2024 정기총회 관련 의결 안건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 2024 년 정기 총회 개최 결과 ●

◎ 일시 : 2024.02.15. (목) 14시

◎ 장소 : 광명역 KTX회의실

◎ 참석자 : 평생회원 146 명중 명 참석

◎ 의결안건 :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과반이상 찬성
으로 원안 가결

- 1) 현황
- 2) 2023 년도 사업실적보고
- 3) 2024 년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안)
- 4) 이사 추천 및 선임
- 5) 감사 추천 및 선임

◎ 의결 사항 :

- 1) 이사 추천 및 선임 - 원안대로 승인
- 2) 감사 추천 및 선임 - 원안대로 승인

○ 이사 선임

- 이*학 : 2024년 정기총회 ~ 2027년 정기총회 (중임)
- 어*석 : 2024년 정기총회 ~ 2027년 정기총회

○ 감사 선임

- 권*대 : 2024년 정기총회 ~ 2026년 정기총회 (중임)
- 오*영 : 2024년 정기총회 ~ 2026년 정기총회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
합

2)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
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 힐링캠프, 체
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
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
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
3035)

정부·국회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人體)에 비유하여 ①안전보건 리더십, ②인력·예산, ③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④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받아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고,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생존과 경영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려워만 말고 동영상을 참고하여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작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90

소규모 사업장, 공동으로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9.~3.22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 예정, 4월 중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2월 19일부터 게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 2월 14일 전국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대구), 28일(광주), 29일(창원) 등 총 5회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순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및 전문역량 배양 교육, 현장 직무교육(OJT) 등이 있으며,

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교육,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등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209

산업안전! 대진단을 대전환의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대응 결의

얼음은 녹아도 안전은 녹지 않도록 하세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산재예방 지원에 모든 자원 역량을 집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되었다.

장관,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간부들과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최초의 사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대재해 감축에 양 기관이 혼연일체로 매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안전행정에 의기투합하는 자리였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필두로,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노력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도 발표했다.

-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
-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역량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되었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올해 3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 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함께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사용할 수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6218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6210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 12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간담회 열려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원·하청 간 자율적인 산업 안전 상생협력 확산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2일(목) 10시, 서울 대한상의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 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2.19. 공모)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225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중앙과 지방이 같이 한다!

- “20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17개 전체 광역지자체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6일(월)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안부 등과 함께, '24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를 공유했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과 협업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1년~23년 9월까지 평균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수는 경기(212명), 서울(70명), 경남(64.3명) 순으로 많았고, 전국 공통적으로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358명)가 가장 많았으며, 대구, 경남은 제조업, 대전은 운수창고통신업의 사망자 수가 많았는데 이는 근로자 수 및 고위험업종의 지역 분포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237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 [1/22, 울산 동구] 철골 상부 작업 중 단부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3m)
- [1/16, 충남 천안시] 철골 상부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짐(6m)
- [2/9, 경기 화성시] 파이프 세척작업 중 작업용 대차와 세척기 도어 사이에 끼임
- [2/13, 충북 충주시] 창고 지붕 상부 작업 중 채광창이 파손되어 바닥으로 떨어짐(4.3m)
- [2/13, 충북 음성군] 낙하물 방지망 철거 작업 중 안전간간이 탈락하며 지면으로 떨어짐(18m)
- [2/12, 울산 동구] 원유설비 블록 이동작업 중 블록이 넘어지며 끼임
- [2/15, 경기 안산시]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중 배관 내부 압력차로 배관 캡이 튀어나와 맞음
- [2/4, 전북 정읍시] 파쇄기 수리 작업 중 끼임
- [2/17, 강원 영월군] 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 끼임
- [2/19, 경기 안양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떨어짐
- [2/15, 경기 포천시] 천장 보온재 설치작업 중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짐
- [2/22, 인천 중구] 스키드 로더로 제설 작업 중 주민공동시설 단부구간에서 떨어짐
- [2/24, 경북 문경시] 창호 반입을 위해 외부 비계 해체 작업 중 떨어짐
- [2/24, 충남 서산시] 열교환기를 운반하던 중 열교환기에 깔림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95호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4020090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12호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4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40201358

2024년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시설) 평가 실시 공고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건설)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803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안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조치 당부

해빙기는 겨울철 동결되었던 지반의 융해로 인해 연약화 되면서, 사면 및 시설물 기초를 약화시켜 균열·무너짐 등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재해 취약시기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당부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809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2024년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 학술대회 미리보기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의학 - 지식3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

1990년 창립한 한국산업보건학회(학회장 정지연)에서는 2024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여수엑스포컨벤션 센터**에서 제58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회장 초청의 글 보기](#)

안내 데스크, 최신기기/건설팅회사 전시부스 위치 등 행사장 정보와 숙박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행사장 정보](#)
[숙박 정보](#)

오늘(2월 14일)이 사전등록 마감일입니다. 이후에는 현장등록만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월 21일 수요일 첫째날 프로그램

행사 첫날인 21일 수요일에는 오전 2개의 견학 코스와 오후 5개의 PDC(Professional Development Course) 강좌를 선보입니다.

2개의 견학코스

첫 번째 견학 코스인 **여수안전체험교육장**은 국내 최대규모의 체험형 안전보건 교육장으로 **최근에 개관한 안전테마파크**입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산업시설인 석유화학공정 등에서의 안전보건 위해요소에 대한 재미있는 체험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된 인원에게 학술행사장에서 9시 45분 단체로 출발하여 2시간 견학 후 12시 20분에 학술행사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견학 코스는 포항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지어진 **포스코 광양제철소**입니다. 철강 해설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철강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작업환경에 대해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전 신청된 인원에게 대해 9시 30분 단체로 학술행사장에서 출발하여 2시간 견학 후 12시 30분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2024년 동계학술대회 견학프로그램 안내](#)

-이하 생략-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지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분자나 유전자 수준의 분석과 개입으로 가능해지면서 의학의 관점도 점점 더 미세하고 정밀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비알코올성 지방간) 등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점점 더 유전자적 원인을 규명해서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맞춤형 화학물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 정밀하고, 더 최신기술을 적용하는 이런 관점이 더 진보적이고, 더 효과적인 접근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만성질환의 증상이나 특징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보다, 잠시 한발 물러서서 이런 **질병들이 변화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조망하는 것이,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해서는 더욱 실용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가령,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10~18세 한국 청소년의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남성의 경우 154.9에서 161.2mg/dL로, 여성의 경우 161.4에서 168.9mg/dL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고지혈증에 취약한 유전자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주로 섭취하는 음식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고 실용적일 것입니다. 소아청소년의 식단 변화는 한국인의 식단 변화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사\] "국내 소아·청소년 콜레스테롤 수치 급증...29%는 이상지질혈증" 2021.7](#)
[\[논문\] 성별 및 체질량지수에 따른 한국 청소년의 이상지질혈증 동향: 국민건강영양조사](#)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62/>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64/>

채용전 건강검진은 윤리적인가?

채용전 건강검진은 산업보건영역의 윤리적 쟁점

채용 전 건강검진의 목적은 직업병, 부상, 병가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을 찾아서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질병이나 부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합니다. 채용전 건강검진이 없다면 약 2%정도에서만 구직이 거부되나, 채용전 건강검진을 시행할 경우 최대 35%까지 채용이 거부된다는 보고가 있으니까요. 채용이 거부되는 사유가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타당한 근거없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의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과연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채용전 건강검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채용전 건강검진, 폐지되었으나 금지된 것은 아니다

채용전 건강검진이 분별없이 시행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B형 간염바이러스, 요추분리증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의무가 폐지**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됩니다. 원래 이 제도는 채용 전 건강진단이 아니라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유해부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검진이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시행되는 배치 전 건강진단과 같은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배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사업주가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검진으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시 건강검진의 실시의무가 폐지되었으니, 그 이후 채용 전 건강검진은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위 보도자료\] “B형간염 양성반응 이유로 채용거부는 차별”](#)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65/>